

## 한국 벤처여, 세계무대로 진군하라!

### 앞선 글로벌 리더에게 듣는다

빛의 속도로 아이디어와 돈이 움직이는 오늘날의 시장은 국경의 구분이 없다. 이제 글로벌화는 생존에 관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벤처 강자는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벤처인들의 세계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역사상 넓은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힘썼던 글로벌 리더를 인터뷰하여 글로벌 업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다들 지구촌

곳곳에서 글로벌 CEO이자 리더십 소유자로 새롭게 재조명되며 생전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시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벤처CEO들을 위해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그만큼 이 인터뷰가 글로벌에 대한 웅대한 꿈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알렉산더대왕 (BC 356~BC 323)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다. 단순함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 **당신은 너무 일찍 죽었기에 누구보다 세계 정복에 대한 소감이 남다를 듯한데?**

“난 대대적인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 33살에 갑자기 죽었소. 그러나 정복한 땅에 내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 라고 도시를 70개나 건설하였으니 여한은 없소. 왜 세계정벌에 나섰냐고? 난 어릴 적부터 그리스 사상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싶다는 오래된 꿈을 가지고 있었소. 또한 아버지가 창건한 군대를 유지할 비용도 충당하고, 내가 빛낸 500탈렌트를 갖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부가 필요했기 때문이시오. 그 목표에 걸맞는 뛰어난 기병대 병력에 다양한 혁신적 전술이라는 비장의 무기도 있었소이다. 참,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소. 워싱턴포스트지가 선정한 지난 1천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말이오? 1천년이라고 못박지만 않았어도 1등은 내뒀이오. 나아말로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운 장본인이 아니겠소. 내가 요절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건가 싶어 그 점에선 내 빠른 죽음이 안타깝소이다.”

● **한국의 벤처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난 전쟁을 하며 특히 전술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소. 그리스 전법에 패전국 페르시아의 전법까지도 받아들이며 새로운 전법을 창조하고 혁신을 이루고자 했었소. 한국의 벤처 전사도 기존 전법의 혼합과 활용을 넘어 발상의 전환을 하길 당부하오. 항상 내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 일화를 기억하시오.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신탁을 믿고 술한 이들이 노력했소. 나도 풀어보려 했으나 안풀리더군. 그래서 난 칼로 매듭을 잘라 버렸지. 그 뒤 난 예언처럼 아시아 땅을 다스리게 되었지 않았던가. 문제는 간단명료하게 생각을 해야 오히려 쉽게 풀리는 법이시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것이 내가 한국 젊은 벤처인들에게 꼭 전하고픈 말이오.”



징기스칸 (1167~1227)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 당신이 세계 정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그대들이 사는 시대로부터 800년 전, 우리 몽고는 5부족으로 나뉘어 내전중이었소. 내가 천신만고 끝에 내전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시켰으나 그땐 이미 고원은 오랜 전쟁으로 피폐했소. 그래서 난 우리 몽골인이 살 길은 고원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소. 그래야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고 더 이상 동족상잔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그래서 동포들과 함께 몽골고원 바깥 세상으로 달려 나간 것이오.”

● 그래서 바라던 대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허허. 우문일세 그레. 지난 1995년 워싱턴포스트지가 과거 1천년동안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선정한 사람이 누군가말일세. 하하. 혹시 알렉산더가 뭐라고 불평하지 않던가? 인류 역사상이라고 기간을 정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을꺼라고 장담하오. 사람들이 종종 알렉산더와 나폴레옹과 나를 비교 들하며, 그중 특히 날 폄하하고 흠집을 내려 하지만, 정복한 땅의 크기만 보아도 누가 최고의 세계 정복자인지는 분명할 터. 다만 내 후손들이 ‘흠벽돌집에 살지 마라’는 나의 유언을 오래도록 지키지 못해 지금은 내가 세운 제국의 영화가 애잔한 추억으로만 남은 것이 애통할 뿐이오”

● 세계진출을 준비하는 한국의 벤처인들에게 한마디?

“내 성공의 비결은 한마디로 ‘비전의 공유’ 일세. 고원 안에서 아귀다툼하지 말고 고원 밖으로 나가자고 비전을 제시한 것. 그 비전을 이루기위해 난 병사들과 함께 초원 위에서 잡자고 덩굴었소. 구성원과 함께 미래를 향한 꿈을 공유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수 있소. 한국의 젊은 벤처인들이여 부디 잊지마시게.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임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1821)

“내가 너보다 키는 작을지언정 너를 꺾고자 하는 나의 맘은 누구보다 더 크다”

● 당신은 세계 정복자라기보다 난세의 영웅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음... 인정하오. 난 앞선 두 사람에 비해 정치에 뛰어난 직업군인출신이란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오. 마치 막엔 유배를 갈 정도로 적도 많았소. 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동토 러시아까지 진군한 뜨거운 열정과 신념을 가진, 멋진 황제였었다고 자부하오. 자네는 그건 아는가? 내가 새로운 화기 대포를 이용해 싸운 최초의 장군이었던 것을. 그 전까지 보병과 기병끼리의 전투였다오. 훗훗.”

● 당신도 한국 벤처인에게 한마디 한다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식상할테고... 내 일화 하나 들려 주리다. 한 번은 내가 산에 올랐는데 키가 아주 큰 적군이 앞을 가로막으며 비웃더군. 그 작은 키로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때 그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랬는지 아시오? ‘비록 땅에서부터 재면 내가 너보다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는 너보다 훨씬 크다. 내가 너보다 키는 작을지언정 너를 꺾고자하는 나의 맘은 더 크다’ 라고 했소. 한국 벤처인들이여, 지금은 나라도, 가진 것도 작다고 지레 겁먹지 말고 큰 비전을 가지시오. 나 코르시카의 촌뜨기로 태어났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소이다.”

어렵게 인터뷰를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항상 엄숙하고 무겁게 다가온 세계 진출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번 인터뷰에는 잭 웰치 전 GE회장도 기획을 하였으나, 유일한 동시대인이어서 바쁜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2년 전 “한국 기업인의 모험심과 열정,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21세기의 징기스칸은 한국 기업인”이라고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또한 21세기 미국의 경쟁자는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고도 덧붙여왔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세계진출, 이제 시작이다. 그 세계진출 성장엔진의 맨 앞줄에 우리 벤처가 서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생존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지배한 벤처는 곧장 세계시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을 쫓는 벤처는 더욱 간편하게 무게를 추려 속도를 갖추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함께 무한경쟁의 세계 시장을 향해 발맞춰나가자. 그리하여 잭 웰치의 예상을 보란듯이 현실로 보여주자.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21세기의 징기스칸, 한국 벤처인들이여 이제 꿈을 향해 함께 세계로 진군하자.